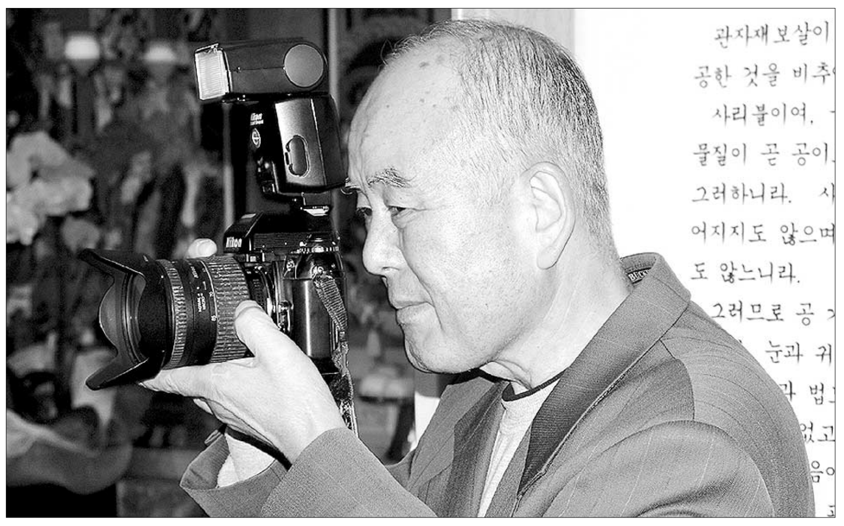
소비자보호원 불자회 김종관 총무가 불교계 정보 사이트들을 서핑하며, 중요소식들을 개인 카페에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경찰불자연합회 김진홍 사무국장이 11월 4일 경찰청 정기법회를 찾아 경찰불자들의 신행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있다.

"우리 직장불교회 소식 내가 알린다"

카페 · 매거진 운영 … 전천후 '불교 알림이'

각종 법회 · 교리 등 자세한 정보제공
행사 취재 · 자료 찾기 바빠도 보람 커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지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각종 신행활동을 펼치는 직장불자들이 많다. 출근길 경전 독송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업무 틈틈이 사경과 참선 등으로 하루를 알차게 설계하는 이들. 주말이면 밀린 잠도 자고 싶고 아이들과 인근 공원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자비를 실천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장불자 뒤에는 '불교 알림이'를 자처하며 직장 불교회들의 활동사항과 불교계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접 사진을 찍고 뛰어다니며 관련 정보들을 취합해 불교회 홈페이지와 사보 등을 통해 전하고,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개설해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 불교회 가교역할

대한민국경찰불자연합회(이하 대한경불회) 김진홍(67 · 선의) 사무국장. 이미 경찰제복을 벗은 지 6년이 지났지만, 대한경불회 사무국장직을 맡아 산하 106개 경찰불교회들의 운영지원은 물론 활동을 장려하고 돕고 있다. 사진기를 들고 경찰불교회 곳곳을 누비며 관련소식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이미 모두에게 익숙하다. 경찰불교회 일이면 대소를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며, 직접 사진을 찍고 관련내용을 사이버 경찰서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올려 전국 경찰불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불교회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경찰불교회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신행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난 10월부터는 경찰불교회와 일반인들의 연계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cafe.daum/knpbuddha)를 개설하고, 불교 기초교리들과 관련행사소식, 경찰불교회의 활동사항 등을 알리고 있다.

"현직 경찰들은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업무의 특성상 정기적인 신행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박현남(43 · 자성월) 간사 또한 공불련 행사 곳곳을 아 다니며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www.gongbul.or.kr) 상에 올리고 있다. 감사원 불자회, 건설교통부 불자회, 서울특별시청 불자회 등 소속 불자회들의 성격이 제 각각 인만큼 이들을 공불련 안에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법회활동 등의 불자회 공통분모를 부각시켜주는 게 효과적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공불련 안의 대의원총회와 관련 회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해 회원들이 공불련의 운영상황을 항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불련처럼 연합불자회의 경우, 관련 소식은 물론 불자회 운영모습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불자회의 활동에서 본인이 소속된 불자회의 활동모습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보다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 인터넷으로 포교를…

소비자보호원 불자회 총무 김종관(38 · 송주) 거래조사국 과장. 그는 인터넷을 통해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와 클럽만도 3개. 조계사 청년회 법우들과 함께 하는 불교 스터디 모임인 '벗과 다르마'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싸이월드 클럽(doban.cyworld.com)을 통해 지인들과 공유하고, 불교계 신문과 각종 모임에서 얻는 불교계 소식들과 기초교리 등의 정보는 네이버 카페(cafe.naver.com/buddhist)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또한 불교소식 사이트(www.emag21.com)를 운영하며 '연꽃나라의 불교이야기'라는 이메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조계종 중앙신도회(www.joongsin.or.kr) 객원기자로 활동하며 사찰탐방기사를 인터넷 상에 올리고 있다.

김 과장이 이렇게 인터넷 포교사로 활동하게 된 이유는 2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직장불자들이 일과 신행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상식과 교계정보들을 인터넷 상에 올려 직장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기로 했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 저녁시간. 인근 사찰을 찾기는 힘든 시간들이지만 직장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불교정보들을 살피고, 각 종 신행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불자회원 한범수(56 · 대광) 잠실역무관리소장 또한 인터넷 포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카페 '직장불교(cafe.daum.net/officebuddha)'는 불교기본 상식부터 경전해설, 불교사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불교를 접하지 못한 직장인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지만 불교에 대한 기반지식이 없어 안절부절 못하는 초발심자들을 돕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우리은행 불자회원 현동관(48) 은평구지점장과 농협중앙회 불교회원 이종훈(48) 경영검사부 팀장 등 많은 직장불자들이 불교관련 정보들을 사내전산망과 회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에 올려 많은 직장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 전문적인 지식창으로

박수호 중앙승가대 부설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터넷 부처님터 천불동(www.buddhasite.net)을 통해 전문적인 불교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담보로 잘못된 불교상식들과 편향 · 왜곡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원으로서 알고 있는 불교 관련내용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려나감으로써 불교를 깊이 있이 알기를 원하는 불자들과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취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부산공무원 불자연합회

부산 불심(佛心)의 구심점. 부산공무원 불자연합회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15년 전인 1990년도에 18명의 회원으로 창립돼 현재 부산시청 내 16개 구 · 군 소속 회원 800여명이 끈끈한 정과 깊은 신심을 공유하고 있는 불자회입니다.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회원 개개인들의 직무로 자주 법회를 열지는 못하지만, 지난 15년간 두 달에 한번씩 모든 회원들이 서구 보타원(주지 보광)에 모여 정기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법회로 채우지 못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갈증은 올해 2월에 개설한 홈페이지(www.busangongbul.or.kr)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일에 치이고 몸과 마음이 늘기는 직장불자들이 손쉽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불교이해하기, 사찰을 찾아서, 사이버법문 등의 각 카테고리를 통해 회원들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주요사찰들을 찾아 사찰건축기법과 그 안에 모셔진 불상, 탱화 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사찰을 찾아서' 코너는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찰을 그냥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를 통해 불교 전반과 사찰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얻고 찾았을 때 그 감흥이 정말 달랐다는 반응이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정기법회 이외에도 성지순례를 중요한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화합과 신심고취를 위해서는 성지순례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지순례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불자가 아닌 근무처 직원들과 회원들의 지인들이 함께 해 포교효과도 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2~3곳의 사찰을 참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사찰의 고즈넉한 멋과 철야정진법회 등을 통해 느끼는 심신의 안정은 어느 법회 못지않은 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이밖에도 우리 불자회는 부산 내 장애인복지관 및 어린이 · 노인복지시설 등을 항시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원들 모두가 시정활동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니만큼,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해도 수시로 관련 기관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생필품을 지원하고 거동을 돕거나 목욕봉사 등 필요한 노력봉사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 모두가 스스로 상을 내서는 안 된다며 활동을 쉬쉬해 정확한 활동사항을 집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공무원 불자연합회는 부산의 불심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공무원 불자회원들이 지난 3월 성지순례를 위해 백련사를 찾은 모습.

두달에 한번 정기법회 … 홈페이지 운영
성지순례 · 봉사활동 신행열기 유지

■박의봉 총무(도시개발심의관실)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나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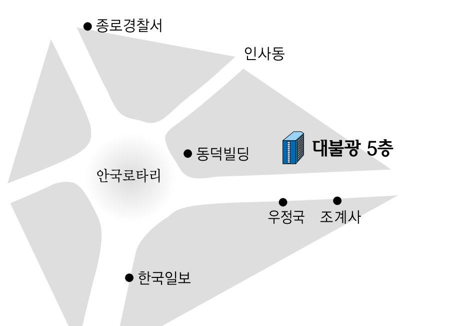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대불광 이전

대불광이 작은마음으로 문을열어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제방스님 불자님들의 관심과 은덕에 힘을 입어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개관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일일이 전해야 하지만 우선 지면으로
인사 여쭈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대불광 대표 허길량

마음을 다하여 초대의 글을 올립니다.
개 관 안 내
일 시 : 2004년 11월 18일 오후 5시
장 소 : 대불광빌딩 5층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빌딩 5F 전시관 02)738-1117